

動에 參與한 諸學者의 一人이라 하겠다. 곧 國運이 기울어가는 高宗四十二年 乙巳(西紀一九〇五年)에 薦擧로 靖毅郎을 除授하였으나 不就하고 兼하여 官服을 下賜하였으나 奏疏辭免하였다. 그리고 學行으로 當世에 이름이 있고 平生 鄉里의 吟誦臺에 諸生을 모아 講學에 힘썼으며 乙卯(西紀一九一五年)에 卞하니 蘭谷集 數卷이 있다.

肖像畫는 李朝末 有名한 畫員인 石芝蔡龍臣이 그린 것이니 곧 前述한 바와 같이 宋先生이 靖毅郎을 除授되었으나 不就하고 官服을 下賜하였으나 奏疏辭免하던 乙巳·丙午年間에 石芝 蔡龍臣이 定山縣監^③으로 在任하였는데 이 무렵에 自請하여 그렸다 한다. 畫幀은 長이 一三五cm 幅이 七三cm의 絹本淡彩로 簇子로 만들었다. 팔짱을 끼고 花紋席위에 正座한 姿勢가 端雅하고 恒常 一舉手 一投足을 慎重히 하는 그 一貌가 干先 兪보인다. 網巾에 幅巾을 쓰고 深衣를 着한 儒生의 典型的인 服飾을 하였는데 素朴한 表現이 넘쳐 흐른다. 그리고 이 肖像畫의 모든 精力이 集中되어 生動하는 表現이 顔容에 나타나고 있으니 곧 六十頃에 가까운 老顏의 주름살이 보이고 幅巾 밑으로 들어나 보이는 頭髮과 등성 한 수염에 若干의 白毛가 섞이었는데 그 面相에 溫厚한 德氣가 풍기는 가 하면 兩眼의 四明相과 더불어 強한 正義感이 흐른다. 마치 肖像畫의 主人公의 學問·德行·義理心等に 接近된 作者의 崇高한 性品이 나타난 筆致라 하겠다. 그리고 作者는 洪景來亂에 義로운 行動을 한 廳妓 崔紅蓮^④에게 깊이 느낀 바 있어 그의 肖像畫를 그린 일이 있는데 여기 宋炳華先生의 學問·德氣 또는 乙巳·丙午年間의 正義感에서 取해진 處事等に 感動되어 그의 肖像畫를 自請하여 그리었다는 精神은 畫風과 더불어 빛이 나고 있는 것이다.

作者 石芝 蔡龍臣은 憲宗十四年 戊申(西紀一八四八年)에 出生하여 庚戌 國恥 四年後인 西紀一九一四年에 卞하니 九十四歲를 누리는 동안 李朝末의 畫員으로서 高宗의 御容을 그린바 있어 御容畫師가 官職에 任命되는 準例에 따라서 高宗四十二年 乙巳(西紀一九〇五年)로 부터 翌年인 丙午까지 定山縣監으로 있었으니 官職을 얻은以後도 作品生活을 계속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石芝의 作品으로는 有名한 「雲娘子

崔紅蓮肖像畫」를 비롯해서 적지않은 肖像畫作品이 京鄕에 傳해 왔으며 여기 또 「蘭谷 宋炳華肖像畫」가 添加된 셈인데 石芝는 李朝末 肖像畫家로서 代表的인 사람이라 하겠다.

〔追記〕 蘭谷 宋炳華肖像畫는 調査 當時에 이 肖像畫의 來歷을 잘 알고 있는 그의 傍系孫을 通하여 石芝 蔡龍臣 作임을 確認하였다.

註

① 宋蘭谷行狀

「宋炳華 字晦卿 號蘭谷 恩津人 降時父夢 黑龍盤繞內室大梁 朱子至 家命小字賢錫 八歲就塾師 學了讀通史三冊；略：讀栗谷擊蒙要訣 尤庵已丑封事 歎曰 栗翁 我東孔子 尤翁我東朱子 欲學孔朱 當自栗 尤始作願學歌而勉從遊荀庵申文敬應朝淵齋 宋文忠秉璫身心性情之 蘊人倫百行之著 與夫華夷正邪之分反復揚於隋事融徹諸賢敬重詔以 斯文有託高宗乙巳繡衣李範祖牧使宋秉琮參贊郭鍾錫余判尹昌燮薦于 朝 特除靖陵參奉不就 禧陞六品因遣官敦召兼賜官服表裏即附奏又舉 辭疏云」

② 玄相允著 朝鮮儒學史 「斥邪衛正的 運動」條

③ 拙著 青陽郡誌 「人物——定山縣先生案——」條

④ 雲娘子 崔紅蓮肖像畫 (國立博物館藏) (一九六四年 二月 一日 朝鮮日報 「古美術」에 나타난 韓國의 美女^②條 參照)

⑤ 金元龍 「李朝의 畫員」(鄕土史會 第十一號條 參照)

南原 新村里의 石佛坐像과 塔材

鄭 永 鎬

全北道 南原邑에서 東쪽 江을 건너 朱川面 龍潭寺로 가는 觀光道路 約 一km 地點인 新村里 탑상골(塔像谷)에 石佛一軀와 塔材가 遺存한다. 周圍 耕作地에서는 瓦片이 出土되어 一帶가 寺址로 推定되며 이곳 地名인 「탑상골」의 由來도 이 遺物에 依한 것이 짐작된다. 教育長 金漢植氏의 말에 依하면 四十餘年前 어린時節부터 現位置에 있어서 洞民들이 禮



拜하고 있었다는데
當時塔材는 좀더 많
은 部材가 殘存하였
었다 한다. 이들 遺
蹟에 關하여는 아무
런 記錄도 없고 그
동안 筆者가 이 地
方을 數次 踏査하
였었는데도 發見치
 못하고 昨年 十二月

初 新羅五岳調査次 同人 文甲洙 尹容鎮 金鍾太 諸氏와 同行하였을 때 처
음으로 調査하였기에 簡單히 紹介하고자 한다.

佛像은 原位置로 道路右側 밭속에 南向하였는데 光背는 具備하였으나
膝部以下가 埋沒되어서 알 수가 없었다. 坐像과 光背는 같은 돌(同一石)
로서 陽刻된 佛像이 「테리이푸」가 強하여 거의 圓刻에 가깝다.

如來像으로 素髮의 頭頂에는 肉髻가 있고 목에는 三道가 돌며 相好는
圓滿하나 兩眉만 뚜렷한 鼻, 口脣과 兩耳에 磨損이 있어 慈悲스러운
原形을 그릇치고 있다. 右肩偏袒한 法衣는 流麗하게 兩膝을 덮었고 手
印은 降魔印을 結하였다. 埋沒된 下部를 試掘하여 蓮華臺一石이 倒置된
것을 確認하였으며 이것은 下臺石이 아닌가 짐작된다^① 그리고 바로
앞쪽에 圓形蓮華臺石 一座가 放置되어 있는 바(徑一〇〇cm 厚三五cm)
上面에는 徑二八cm, 深十三cm의 圓孔이 있고 單葉重瓣仰蓮內는 彫飾
이 있는데 이 臺石을 坐像臺座로 본다면 上臺로 推定된다^② 光背는 舟
形으로서 頭部에는 大彫圓帶를 돌리고 그 週邊에 八瓣의 單葉重瓣蓮華
紋을 彫刻하였으며 그 밖으로 圓形의 頭光을 太彫하였다. 身光은 肩上
部의 頭光에서 太彫로 내려 區分하였는데 그 間地에는 山形紋의 彫飾이
있어 注目되었다. 化佛은 頂上에 一軀와 左·右一軀씩 都合 三軀인데
모두 蓮莖이 있는 蓮華座 위에 結跏趺座하였으므로 光背의 周緣에는 火焰
紋이 流麗하다. 年代는 坐像의 衣文 및 光背의 形式과 蓮瓣樣式 手法으

로 보아 高麗初期의 優作으로 推定된다. 實測値는 (cm)
坐像高 一一四 肩幅 六三 膝高 一六 坐像頭高 四三 胸幅 三六 膝幅 七〇이며
光背는 總高 一八二 中幅 一一二 頭光外徑 七二 厚 二〇 廣幅 一一七 頭光內徑
三五 化佛高(頂上) 二三 化佛高(左右) 一九이다.

石塔材는 佛像에서 二〇m 떨어진 앞쪽 밭가운데 放置되었는데 上層
基壇甲石으로 쓰여졌었던 것이다. 다른 部材는 埋沒되었음인지 보이지
않으므로 原位置는 알 수 없다. 副緣이 整然하며 上面 塔身받침部에는
伏蓮이 둘러져 있는데 이러한樣式 手法은 이 地點에서 그리 멀지않은 求
禮地方에서도 그 類例를 볼 수 있는 바로서^③ 智異山 西麓의 같은 地
域에서^④ 볼 수 있는 同系의 石塔의 分布를 엿볼 수 있음이 注目된 다
할 것이다.

註

①② 上面中央의 圓孔을 經文의 密藏處로 본다면 上臺가 될 것이고 또
實測値로 보아 거의 均衡이 맞는다. 그러므로 試掘에서 確認한 臺
石은 下臺로 짐작된다. 이 곳을 發掘調査하면 完全히 部材가 收拾
될 것으로 믿는다.

③ 秦弘燮: 「求禮論谷里의 石造遺物」(本誌 第三卷 第八號) 參照

④ 同郡 二白面 孝基里 孝村部落(구곡골)의 三層石塔에서도 같은 類
例를 調査했는데 이 一帶는 智異山西麓이 된다.

資 料

長水郡 下月里 出土遺物

洪 思 俊

이 곳에 紹介하고자 하는 遺物은 一九六四年 五月 七日附 長水郡教育
廳에서 扶餘博物館에 移管된 것들이다. 出土地 出土日 出土由來는 다음
과 같다.

出土地: 長水郡 山西面 下月里